“반복되는 인명사고 참담…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광주 합동분향소 발길 이어져

시민·친인척 등 애도…“마지막 인사도 못건네” 눈물

“세월호의 아픔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호남에서 또 다시 이런 참사가 벌어지다니 참담할 뿐입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은 물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서도 모자람 없이 예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일찍부터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분향소를 찾은 이들은 제단에 국화를 올리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날 두 번째로 헌화를 한 손정숙(59)씨는 “가족 단위의 희생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미어져 추모하러 아침 일찍 나왔다”며 “이러한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어린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잇따랐다.

올해 첫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민아(31·여)씨는 “사고 여객기에 3살 어린이도 타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애도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다”며 “고등학교 교사로 휴직 중인데 희생자 중 학생들도 포함돼 있어 가슴 아팠다. 이제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불안한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김모(36·여)씨는 “연말을 맞아 친구와 광주에 놀러 왔다 참사 소식을 듣고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다”며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들도 많던데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참사 피해자의 친인척과 지인들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안식을 기원했다.

친인척 일가족 4명이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임태문(72)씨는 “평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왕래했던 며느리의 형제 가족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학생 박서은(16)양은 “같은 동네에서 살며 학원과 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잘 다녀오고 방학 잘 보내라’는 안부 인사를 건네지도 못했다”고 눈물을 훔쳤다.

단체 추모객들의 발길도 하루 종일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기관과 광주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도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해남 아시아나항공 충돌, 진도 세월호 침몰 등 호남 지역에서만 벌써 3번째 참사가 발생했다”며 “더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현장 방명록에는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하늘에서 가족분들과 못다한 여행 하시길 빌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빕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약 2천명의 추모객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특별취재반=주성학 기자

3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근 기자

지역 폄훼에 ‘보상금 횡재’ 등 조롱까지

도 넘은 악플러에 공분…경찰, 사법처리 방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일부 누리꾼들이 악성 게시물과 댓글(악플)을 작성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이번 참사 소식을 전하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에는 사고 발생 장소인 무안국제공항에 주목해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무안공항 청사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가족들의 심경을 다룬 뉴스에 한 누리꾼은 “전라도 토착 인민공산민주공화국”이라는 지역 폄훼 댓글을 올렸다.

같은 날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날 작성된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수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듯”이라며 유가족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 수백여개의 대부분은 작성자를 나무라는 목소리들로 채워졌지만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누리꾼도 두 자릿수에 달했다.

이처럼 무분별한 악플이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잇따르자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참사 관련 기사에서 댓글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희생자를 겨냥한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별취재반=안재영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안전한 나라 만들기 전력”

무안 합동분향소 조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애도했다.

최 권한대행의 조문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함께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적은 뒤 분향소로 발길을 옮겨 헌화하고 묵념을 통해 조의를 표했다.

조문을 마친 최 권한대행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유가족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특별취재반=양시원 기자

“마음이 너무 아파…일어나선 안될 일” 무안 합동분향소에도 각계 추모 물결

오후 6시30분 기준 1천800여명 조문…참담함 감추지 못해

30일 무안군 양학리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분향소 운영 첫날부터 희생자들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분향소 앞에 선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허망한 표정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표했다.

조문객들은 먹먹한 마음에 위패 앞에 이를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백발이 성성한 한 어르신은 국화꽃을 받아들면서 터지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냈다. 한 어르신도 단상 위 길게 놓인 위패들 사이에서 희생자 이름을 찾아 어루만지며 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다른 조문객은 위패 앞에서 숙인 고개를 오랜 시간 들지 못한 채 비통해 했다.

분향소 운영 시작 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희생자들의 위패 앞에는 조문객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국화꽃이 수북이 쌓였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최재문씨는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사가 벌어진 게 마음이 너무 아파 점심시간에 혼자 찾았다”며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유가족이라고 설명한 한 어르신도 “슬프고 참담한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을 시작했다. 분향소에는 희생자 가운데 신원 확인을 마친 141명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나란히 놓였다. 합동분향소에는 오전 8시 전후로 무안군 새마을회, 전남도자원봉사센터 등 각종 봉사단체에서 300명 이상의 봉사자가 모여 조문객 맞이, 주변 정리 등에 힘을 보탰다.

일반 조문객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겸 원내대표 등 정치권의 발길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총 1천800여명이 분향소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취재반=양시원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